오는 19일 음악회를 앞두고 있는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와 피아니스트 강소연씨가 6일 광주 일신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꿈을 樂아라"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
11번 도전 끝에 독일 카셀 아카데미 유학
내년 미국 유학 목표·광주시향 협연 꿈꿔
19일 유·스퀘어문화관서 '후원 콘서트'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27)씨는 '해피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유머 넘치는 유쾌함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6일 광주 일신교회에서 피아니스트 강소연(29)씨와 연습중인 장씨를 만났다. 지난달 유학중인 독일에서 들어온 장씨는 19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열리는 후원 콘서트 '장성규를 위한 음악회-희망을 樂아라' 연습에 한창이었다.

빛의 존재만 가물가물 느낄 수 있을 뿐인 장씨는 세광학교의 첫번째 음대 입학생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밴드부에서 드럼을 연주하며 음악을 접한 장씨는 안마사나 사회복지사가 되는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때 독학으로 클라리넷을 익힌 후 고3 때 본격적으로 음악공부를 시작, 광주대 음악학과에 입학했다. 점자 악보가 없는 터라 모든 연주는 '귀'로 듣고 연주했다. 하루 8~9시간씩 소리를 듣고 그 음 하나하나를 익히며 실력을 쌓았다.

대학에서 장씨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독일 유학'. 주변 음악인들에 문의하고,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얻은 후 2007년 카셀 아카데미 음악학교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다. 11번 도전 끝에 이룬 결과였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국땅에서,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며 음악 공부를 하는 건 힘든 일이었다. 곰팡이가 핀 지도 모른 채 오랜된 빵을 먹는 일도 많았고, 어렵게 구한 점자 악보를 일주일이 걸려 다시 점자로 복사하며 연습에 몰두했다.

"입학 때 독일 선생님과 한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수업을 받을 건지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지금은 저를 인간적으로도 아껴 주시는 후원자가 되셨어요. 초창기에는 2박 3일간 1시간만 잔 적도 있어요. 독일어를 모르니 어쩔 수 없었죠. 그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어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4만 단어 정도 되죠."

"만난 사람들은 10분 안에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 소리를 할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난 장씨에게는 클래식 음악 채널에 근무하는 독일인 아빠와 엄마도 생겼다.

장씨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컸다. 장씨의 음악공부를 돕기 위해 2005년 무진장애인장학회가 생겼고, 지금 이 장학회는 또 다른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단체로 커 나가는 중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무진장학회와 대학후배 박소희·장미씨와 실내악단 '무지크바움 앙상블'(신정문·구재향·박다연·이지현)씨 등이 참여하며 장씨도 뽈랑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타나'와 가스펠 등을 들려준다.

장씨는 '꿈 전도사'이기도 하다. 한국에 들어올 때면 강소연씨가 근무하는 화개초등학교 리코더반을 지도하고,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은 장씨의 눈이 되어주고, "아저씨처럼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도 꾼다.

장씨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중이다. 내년 봄 미국 유학을 추진중이고,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여는 것도 꿈이다.

"제 꿈을 이루는 데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많이 베풀어야죠. 또 다른 환경인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신뢰받는 좋은 선생님이 돼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향기를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흥에서 목수로 일하시는데 저희가 가족 사진이 없어요. 이번 연주회 때 근사한 가족 사진을 찍는 것, 그것도 꿈이예요."

한편 장씨 이야기는 KBC '현장 리포트 사랑 세상'(30일 새벽 0시15분)에서 방영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670-26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미향 피리 독주회

9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가야금, 대금 등 다른 국악기에 비해 독주회가 흔치 않은 피리 독주회가 열린다.

피리 연주가 전미향(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수석)씨가 두번째 독주회를 갖는다. 9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경기제 피리와 태평소'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전씨는 지영희 선생의 경기시나위 가락과 남도가락을 재구성한 '박범훈 피리 산조', 승무 반주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삼현육각 편성의 '대풍류', 태평소 연주로 들려주는 '경기제 호적풍류'를 선사한다.

청주대 출신인 전씨는 현재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대표로도 활동중이다.

이현신(해금), 송선명(대금), 안연섭(타악)씨 등 동료 국악인들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방·주방엔 멋진 그림 걸리고 … 거실에선 클래식 선율이

"전시회·콘서트 열리는 우리 아파트로 올래요?"

운암동 아이파크 '갤러리 안' 문화공간 변신
12일부터 화가 정용규전·15일엔 아침음악회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멋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거실, 안방, 주방에 멋진 그림이 내걸린다. 피아노가 놓인 거실에서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퍼진다.

지난해 '생활 속 문화 공간'을 표방하며 자신의 아파트(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이파크 110동 301호)에 '갤러리 안'이라는 문패를 내건 박원영(38)씨가 전시회와 콘서트 '가을, 사랑아'라는 초청장을 보냈다. '갤러리 안'이라는 이름은 '편안하다'는 뜻과 음악회나 전시회를 보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현재 조선대 대학원(미학·미술사학과)에서 미술을 공부중인 박씨는 지난해 최향과 한희원씨의 개인전을 열었고 클래식 연주회도 두 차례 개최했다.

이번 가을 행사에 초청된 이는 서양화가 정용규씨다. 12~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바람의 노래' '해바라기' 등 모두 15점이 내걸린다. 풍성한 색감으로 따뜻한 생명과 사랑을 노래해온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아파트 '갤러리 안'에서는 12일 전시회와 하우스 콘서트가 열린다. 지난해 열린 하우스 콘서트 모습.

12일 오후 6시30분에는 하우스 콘서트가 열린다. 동수정(피아노), 오승석(첼로), 이수연(바이올린), 권종수(색소폰), 김백호(테너), 유형민(소프라노)씨가 출연해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가곡 '얼굴', '가을아', 가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고엽' 등을 선사한다.

15일 오전 11시 마티네 콘서트(아침 콘서트)를 준비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 시키고 호젓한 시간들을 갖을 주부들을 위한 콘서트로 유형민씨가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다.

전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마티네 콘서트도 무료다. 문의 062-514-03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 화단에 단풍 들었네

미술 단체들 전시회 활발

송연식 작 '가을 단풍'

지역 미술 단체들이 '가을 화단'을 화사하게 수놓고 있다.

관람객들과 미술을 통한 교감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출범한 '불휘기픈회'(회장 송연식)는 오는 9~18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10번째 정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정승주, 박주하, 이정석, 문정호, 조현, 박승현, 오광섭, 박흥수, 최요안, 한태희, 김용철씨 등이 참여해 300호 크기의 대작을 선보인다. 문의 062-360-8432.

중견 서양화가들의 모임인 '청동회'(회장 이충연)'는 오는 16~22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26번째 정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덕순, 이금주, 김미영, 김정철, 노의웅, 박현희, 설경임, 최유경, 양원철, 함용식씨가 참여해 다양한 소재의 서양화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1-270-8484.

또 지역 젊은 작가들의 모임인 '소나무회'는 8~14일 나인갤러리에서 17번째 정기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진수, 김효삼, 류재웅, 박구환, 안진성, 오창록, 위진수, 정경래, 한부철씨 등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사한다. 문의 062-232-23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